



인하대 글로컬다문화교육연구단

2023. 9월호 뉴스레터

2023년 9월 30일 / 작성자 : 장현정, 김혜미

ICME 국제학술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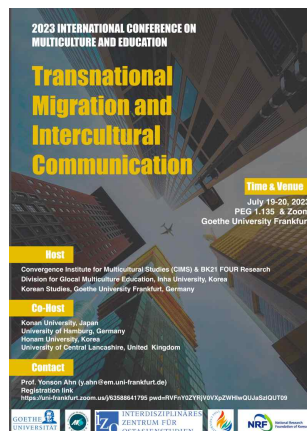
□ 어느덧 10년! 초연결 시대를 함께 살아가기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와 BK 21 FOUR 글로컬다문화교육연구단은 지난 7월 19~20일 ‘초국적 이주와 상호문화의사소통’을 주제로 제10회 다문화와교육 국제학술대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Multiculture and Education, 이하 ICME)를 개최하였습니다.

어느덧 10주년을 맞이한 올해 ICME는 특별히 독일 Goethe University Frankfurt에 모인 해외학자들의 현장 발표를 온라인(ZOOM)으로 생중계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한국, 독일, 일본 3개국의 연구자들이 발표에 참여한 가운데 한국 시간으로 자정을 넘기는 새벽까지 진행되었음에도 열띤 분위기 속에서 유익한 학문수행의 장이 되었습니다.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장 김영순 교수는 “1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올해 독일에서 ICME를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오늘날 초연결 시대(hyperconnected era)를 살아가면서도 그 안에서 많은 배제와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가 이러한 문제들에 관해 의논하고 함께 해결점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날 기조 강연을 통해 남아프리카공화국 한인 이민자들의 생애사 연구를 소개한 안연선 교수(Goethe University Frankfurt)는 “Global North로의 이주가 아닌 Global South로의 이주를 연구했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들은 영구 귀국을 시도하더라도 사회복지시스템의 미비 등으로 남아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남아공 한인 이민자들의 고충을 공유하였습니다. 안 교수는 또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지속적인 학술 네트워크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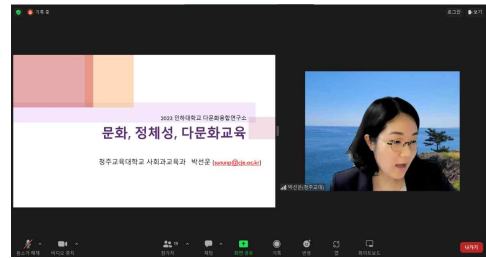


국내 학자 초청특강

인하대학교 BK21글로벌다문화교육연구단과 다문화융합연구소는 한국연구재단 지원으로 매월 국내학자를 초청하여 일반 시민과 연구자들, 학생들에게 무료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99회_문화, 정체성, 다문화교육 / 박선운

100회를 한 회 앞둔 99회 국내 학자 초청 특강에는 『문화감응 교수(교육과학사 펴냄, 원제: Culturally Responsive Teaching)』의 공동 역자인 박선운 교수(청주교대)가 강사로 초대되었습니다.



이날 ‘문화, 정체성, 다문화교육’을 주제로 강의한 박선운 교수는 “다문화교육, 문화 다양성 등에 대한 논의 이전에 문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점으로 다문화교육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하였습니다. 박 교수는 조화로운 다문화사회를 향한 유토피아적 희망에 일침을 가하며 “사회 안에는 권력이 굉장히 많이 작동할 뿐 아니라 긴장, 모순성이 존재한다. 문화는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한국 사회는 그런 지점을 건드리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적인 시각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 어느덧 100회! 다문화교육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다문화교육의 학문적 토대 형성 및 대중적 저변 확대를 위해 지난 2014년 시작된 국내 학자 초청 특강이 어느덧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100회 특집으로 기획된 이번 특강은 지난 9월 16일 인하대 60주년기념관에서 다문화교육학과 동문 포럼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100회 특집의 주제에 걸맞도록 이번 특강은 교수진, 동문 및 재학생이 한데 어우러져 ‘다문화교육의 어제 오늘 그리고 미래’를 그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100회 특강에는 3인의 명예 및 은퇴 교수가 강사로 초청되어 다문화교육의 미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조언을 건넸습니다. 먼저 ‘글로벌 시대의 다문화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한 최충욱 명예교수(경기대)는 “경쟁 위주의 서열식 교육을 넘어서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주는 새로운 공동체 교육이 필요하다”며 “역지사지, 역지감지, 역지행지로 함께 가는 에듀토피아를 구현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을 공동체와 종교와 사회적 역할’에 대한 강연에서 한국일 교수(장신대 은퇴)는 도덕성 해이, 사회적 관계의 단절 등을 현대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고 “한국 사회의 잃어버린 공동체 의식을 다시 회복하고 청년들이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종교가 지닌 사회적 측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교육에서 다문화감수성 기르기’의 주제로 강연한 박인기 명예교수(경인교대)는 한국어 어휘에 담긴 문화적 의미들을 소개하며 “한국어를 기능적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를 함께 가르쳐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였습니다.

해외학자 초청특강

53회 '지리적 발견' 이후의 대규모 이주 현상과 종교성/손승진

53회를 맞이한 해외학자 초청 특강이 지난 9월 18일 인하대 서호관 237A에서 흥미로운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특강에는 멕시코장로교신학대학교 손승진 교수가 ‘지리적 발견’ 이후의 대규모 이주 현상과 종교성: 중앙아메리카의 경험을 중심으로 발표했습니다.

종교와 이주의 연관성을 풀어 설명한 손 교수는 “황금을 노리는 정복자들이 라틴아메리카로 몰려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제적 이유 뿐 아니라 종교적 열망으로도 대규모 이주는 발생할 수 있다” 고 지적하며 “cultural security가 보장되기 어려운 이주의 상황에서 국가가 안전망을 제공할 수 없을 때 종교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습니다.



질적연구방법 워크숍

뜨거운 여름, 이열치열 질적연구자 되기

지난 7월 3~6일 질적연구방법 1차 워크숍이 4일에 걸쳐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차 워크숍의 첫째날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장 김영순 교수는 질적연구자의 책무와 윤리를 소개하며 “질적연구란 자기를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닌 타자 중심적인 연구가 되어야 한다” 라고 질적연구자 되기의 기본을 강조하였습니다. 2~3일 차에는 유기용 교수(숭실대), 이동성 교수(전주교대)가 각각 사례연구와 생애사연구 방법에 대해 강의하였습니다.

8월 21~24일에 이어진 2차 워크숍에서는 문화기술지, 합의적 질적연구, 근거이론 등 1차 워크숍에서 다루지 않았던 질적연구방법에 대한 강의를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질적연구방법 워크숍에서는 1~2차 모두 마지막 날 박사논문 사례발표의 시간을 마련하여 질적연구자 되기를 꿈꾸는 이들에게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BK21글로벌다문화교육연구원
(사) 문화재단

1. 일시: [1차] 2023.7.3~6(월~목), [2차] 8.21~24(월~목) 19:00~21:00
2. 신청서: 구급 신청서 작성 후 제출 <https://uri.kr/44p1ts>
3. 참가비: [1차] 15만원(4명) / (사)문화재단 후원 회원 무료
[2차] 15만원(4명) / (사)문화재단 후원 회원 50% 할인
3333-27197-6654 카카오톡 상담
4. 문의: 다문화융합연구소(032-860-8741), hyspace9355@gmail.com

구분	날짜	강연자	주제
1차	7.3 (월)	김영순(인하대)	질적연구자의 책무와 윤리
	7.4 (화)	유기용(숭실대)	사례연구: 경제 지어진 세계 끝에서 보기
	7.5 (수)	이동성(전주교대)	생애사연구: 주기와 탈로, 그리고 매체 찾기
	7.6 (목)	박사논문 사제발표	미술교사의 정체성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8.21. (월)	김영순(인하대)	다문화가정 양부모교육지도사의 생애사에 나타난 타자성 경험과 실천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2차	8.22. (화)	김영순(인하대)	문화기술지: 연구현장의 타자되기
	8.22. (화)	주은선(덕성여대)	합의적 질적연구: 협력과 직관성의 이중주
	8.23. (수)	조상희(영국대)	근거이론의 본질과 패턴: 근거이론의 단계가 있는가
	8.24. (목)	박사논문 사제발표	결혼이주여성의 저소득일 참여경험에 대한 '타자'로서의 배움의 의미 중등 국어과 수업에서의 소중함 다문화 교육프로그램 설계

2023-1 질적연구방법 워크숍 이념과 방법론



2023-2
다문화교육
인문융합치료
개강 총회

□ 개강(開講): 다시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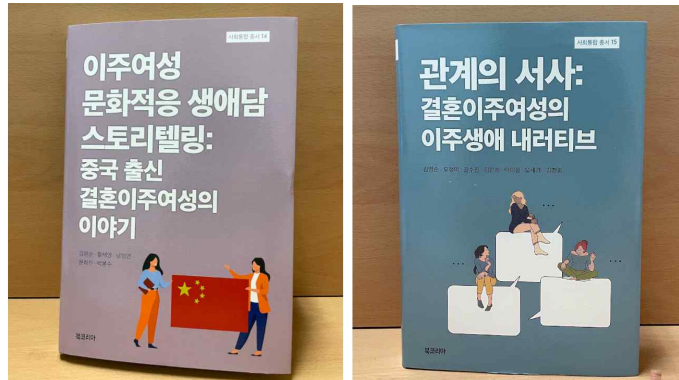
개강을 3일 앞둔 지난 8월 25일(금) 인하대 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 및 인문융합치료 전공 개강 총회가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개강 총회에서는 학과 및 교수진, 교과목 소개, 학문수행의 여정에 새롭게 합류하게 된 신입생들의 인사, 학과 운영진 선출 등이 있었습니다.

김영순 학과장은 인사를 통해 “대학원은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는 곳이며 전문 연구자를 양성하는 곳인 만큼 공부에 집중해서 시간을 사용하기 바란다. 무엇보다 훌륭한 연구자가 되어서 자기 발전을 이루고 사회 변화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진 학과 및 전공별 소모임에서 다문화교육학과 대표로 박사 6차 신혜정 원생, 총무로는 석사 4차 한지은 원생이, 인문융합치료 전공 대표로 박사 7차 강번영 원생, 총무로는 박사 5차 홍근호 원생이 선출되었습니다. 신입생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 ◆ 다문화교육학과: 박사 과정 신은주, 양새씩, 윤혜성
- ◆ 인문융합치료 전공: 박사 과정 전지현, 최영미, 석사 과정 최윤정

사회통합총서
발간

□ 기다렸던 14호, 15호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는 사회통합총서 14호 이주여성 문화적응 생태담 스토리텔링: 중국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이야기, 15호 관계의 서사: 결혼이주여성의 이주 생애 내러티브를 연이어 발간하였습니다. 중국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이주 생애 내러티브를 탐색한 14호는 이들이 이주 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정주민과의 관계 양상, 갈등, 조절을 위한 노력 등을 소개하며 이주여성들의 목소리를 공유하고자 하였습니다. 15호는 필리핀, 태국, 네팔, 베트남 등 동아시아계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직장생활 등 한국에서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서로 다른 문화를 매개하며 상호문화실천의 삶을 살아가는 주체적인 행위자로서의 면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선발

□ 다문화와 생태의 교육적 만남에 관하여



본 연구단의 참여대학원생인 함보연(박사 2차), 최현정(박사 2차), 광민정(석사 4차), 황윤아(석사 2차) 원생이 2023학년도 상반기 대학원 주관의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Self-Directed Learning)에 선발되었습니다. 팀명은 Study with ME(Multicultural Ecology). 4

명의 원생들은 향후 다문화 청소년 생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66번째 학위수여식

□ 영광스러운 졸업의 순간!

제66회 인하대학교 학위수여식이 지난 8월 18일 점심 더위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는 학부 과정 1천1백8명, 석사 과정 4백46명, 박사 과정 69명, 최고경영자 과정 42명이 학위를 받고 정든 교정을 떠났습니다. 다문화교육학과에서는 석사 3명, 박사 1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박사과정 졸업생인 최수안 원생이 그간의 뛰어난 연구 업적을 인정받아 총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학위수여식에서 조명우 총장은 “인공지능이 발전하더라도 인간다운 가치와 소양은 절대 변하지 않는 만큼 따뜻한 마음과 배려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 며 “졸업생 여러분의 미래가 밝고 희망찬 일들로 가득하길 기원한다” 고 훈사를 전하였습니다.



<학위수여식에 앞서 열린 학과 행사에서 축하받는 졸업생들>

With-I 진로페스티벌

□ 다문화사회, 우리가 미래의 주역!

본 연구단은 지난 7월 14-15일 인하대학교가 주최하고 인하 위드아이 청소년 진로지원센터, 입학처, LINC 3.0 사업단이 주관한 대규모 체험 기반 진로박람회에 부스 참가를 통해 다문화교육학과를 소개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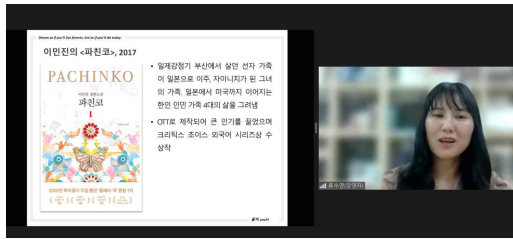
코나아이(주), (사)인천시민재단, 인천 시교육청, 대한항공, SW중심대학사업단 등이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70여 개 학과 및 기관이 부스 운영으로 참가하였으며 양일간 7천 7백여 명 이상의 청소년, 교사, 학부모가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남동고등학교,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세일고등학교, 인천상정고등학교, 관교중학교 등의 학생들이 장마철의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인하대 캠퍼스를 찾아왔습니다.

본 연구단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이라는 주제로 부스를 운영하였으며 부스를 찾아온 청소년들은 “환경을 위해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며 토론하고 싶다”,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없앨 수 있는 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동아리를 만들고 싶다” 등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조성을 위한 나름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다문화인문학 시민강좌

2023년 <다문화인문학 시민강좌>는 “문학과 다문화 사회-문학으로 보는 다문화 사회”라는 테마로 매달 1회 비대면 무료강좌로 진행되며, 문학을 통해 다문화사회에 대한 통념을 해체하고, 새로운 인문학적 통찰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11회_우리 안의 타자, 타자 안의 우리 / 류수연



2023년 다문화 인문학 시민강좌가 ‘우리 안의 타자, 타자 안의 우리-한국 문학과 다문화적 풍경들’을 주제로 지난 9월 25일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강좌에서 류수연 교수(인하대 프런티어학부)는 “한국 문학은 한국 안에서 한국어로 쓴 것이라는 기존의 개념이 흔들리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우리’라는 경계는 계속 확장되어야 한다. 문학의 역할은 타자가 곧 우리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에 있다”고 소신을 피력하고 우리 안의 타자를 새롭게 조명한 실제 문학작품들을 소개하였습니다.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멘토-멘티 함께: AI가 알려주는 세계시민 되어가기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에 참여 중인 대학생 멘토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지난 9월 2일 인하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학생 멘토들과 멘티인 다문화탈북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멘토-멘티 간 유대관계를 돈독히 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멘토-멘티 간 만남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AI)과 세계시민교육의 유의미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멘토와 멘티들은 AI 체험 활동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었으며 인하대 캠퍼스 탐방 및 즐거운 점심식사 후 행사를 마쳤습니다.

BK참여교수 동정

시민이여, 책을 읽어라 / 김영순

인하대 글로벌다문화교육연구단장 김영순 교수는 지난 8월 16일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주최의 북콘서트에서 ‘시민의 책 읽기’를 주제로 강연하였습니다. 이날 강연에서 김영순 교수는 “책 읽는 시민은 사회문화적 시민이며, 리터러시를 할 줄 아는 시민이다. 이러한 독서는 사회의 변화를 지향한다”라고 독서의 중요성을 피력하였습니다.

학익여고 학생들과의 만남 / 김영순



김영순 단장은 지난 7월 14일 인천 G-T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공동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익여자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세계시민과 지역사회’라는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 인하대 혁신교과목 개발 / 장성민

본 연구단의 참여교수인 장성민 교수가 인하대 혁신교과목 개발 우수교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해당 교과목인 ‘국어과 논리 및 논술’은 전통적인 강의식 교수법뿐 아니라 플립러닝, 소집단 협력학습, 성찰일지 작성, 문제중심학습 기반의 프로젝트 학습 등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인하인 인터뷰를 통해 장 교수는 “챗GPT를 포함해 빠르게 변화하는 인공지능 시대의 문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교육 담론 형성에 기여하고 싶다”는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 국제학술대회 참석차 독일 및 일본 방문/ 최현식



최현식 참여교수는 기록적 폭염 현상이 전세계를 강타한 지난 7월 국제학술대회 참석차 일본과 독일을 연이어 방문하여 학문적 지평을 넓혔습니다.

먼저 7월 19~2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제10회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ulticulture and Education(ICME)에 최 교수는 ‘만주, 내적 망명 또는 환대의 장(場)-백석의 만주 시편의 경우’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어 지난 7월 24일에는 일본에서 열린 2023 심연수 도쿄 학술세미나 및 현지 답사에서 ‘만주(북방), 내적 망명 또는 환대의 장-백석과 심연수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 독서아카데미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 박선미

박선미 참여교수는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천도서관에서 진행된 독서아카데미 ‘이야기를 걷는 지리여행(부제: 아주 쓸모있는 세계 속 지리)’에서 지역사회 시민들과 의미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 5회로 진행된 아카데미에서 박선미 교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읽는 오리엔탈리즘’, ‘낮선 기후 낮선 문화’, ‘커피로 읽는 세계 이야기’를 주제로 1~3회차 특강을 담당하며 본 연구단의 3대 역량 목표인 교육학적 실천에 기여하였습니다.

독서아카데미
이야기를 걷는 지리여행
아주 쓸모있는 세계 속 지리

1. 일시: 7.27~8.31 매주(목) 19:30
2. 장소: 청천도서관 2층 다목적실
3. 대상: 청소년 및 성인 50명
4. 접수: 7.4(화) 10:00~ 홈페이지, 방문, 전화

강사: 박선미, 성경원, 한병관

2주제 5강 참여자 모집중!

코로나바이러스로 읽는 오리엔탈리즘
여행 유튜브들은 보여주지 못한 그 곳 이야기
목인의 소울푸드가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왜 전투를 하다 갑자기 예배를 드리지?

독서아카데미
청천도서관 032)330-9771-3

BK원생미팅. □ 7~9월 BK원생 미팅 및 월례세미나

월례세미나

본 연구단의 참여대학원생들은 매월 둘째주 월요일, 넷째주 월요일 각각 원생 미팅 및 월례세미나를 통해 서로의 연구 내용을 공유하고 연구자로서 발전을 도모합니다. 본 연구단의 비전인 인문학적 성찰, 사회과학적 탐구, 교육학적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시간입니다. 8~9월 월례세미나에서 공유되었던 연구의 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례세미나		발표자	주제
8월	8.28	유희수 (박사 3차)	농촌 거주 중년기 비혼 남성의 삶에 관한 생애사 연구-슈제의 이야기식 인터뷰를 중심으로
		곽민정 (석사 3차)	귀환한 재외 동포 연구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 한국에서의 삶을 중심으로
		황윤아 (석사 1차)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계승어 교육 경험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
9월	9.25	남정연 (박사 6차)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창업 경험에 나타난 주체성에 관한 질적 연구

BK학술동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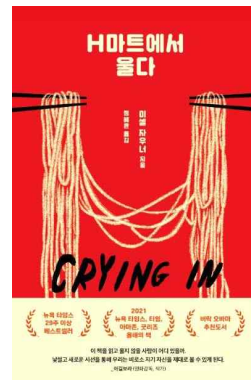
다북다북

다북다북은 BK 참여대학원생들의 자치 모임으로 격주로 수요일 11시 30분에 진행됩니다. 함께 책을 읽고 생각을 서로의 생각을 공유합니다.

□ 읽는 만큼 보인다! 계속되는 책 읽기



2018, 책세상 펴냄



2022, 문학동네 펴냄

2023-1학기에 참여대학원생들은 지바 마사야의 『공부의 철학, 부제: 깊은 공부, 진짜 공부를 위한 첫걸음』을 읽고 토론하며 공부하는 연구자로서 함께 성장하였습니다. 지바 마사야는 당연시되는 코드를 의심하고 비판하는 ‘츛코미(아이러니)’와 코드에서 어긋나려고 애쓰는 ‘보케(유머)’의 개념을 중심으로 공부란 일상생활에 의심의 칼날을 들이대는 문제화 작업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이번 학기에는 한국계 미국인 미셸 자우너의 성장기를 담은 『H마트에서 울다』를 함께 읽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가 큼니다!

‘마음이 거닐다’는 BK 참여 교수님과 원생들이 관심있는 이슈나 주제, 경험 등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박선미

(인하대 다문화교육학과 교수)

「걸리버 여행기」의 걸리버 선장은 하늘을 나는 섬인 라퓨타를 방문한다. 이곳 사람들은 머리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눈도 하나는 깊숙이 들어박혀 있으며 다른 하나는 위로 올라가 있다. 늘 깊은 사색에 사로잡혀 듣거나 말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시종이 공기주머니로 사람의 입과 듣는 귀를 부드럽게 두드려 깨워줘야 대화할 수 있다. 라퓨타에서는 사색에 사로잡히지 않은 이들을 학식이 형편없는 저급한 사람이라며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한다. 이들은 사색 이외에 다른 현실적 문제에는 무관심하고 심지어 천박하게 여긴다. 정신과 마음이 온통 사색에 사로잡혀 다른 일에 무관심하므로 의견을 갖는 경우가 드물다.

대학과 지식인의 역할에 대한 토론과 믿음이 있었던 1980년대는 어쩌면 낭만의 시대였다. 당시 대학가에서는 장 폴 사르트르의 「지식인을 위한 변명」을 필독서처럼 읽었다. 대학생이었던 필자도 지식인의 역할 토론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단 한 번도 지식인이라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던 차에 지식인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낯설지만 매우 흥분되는 경험이었다. 당시 대학에는 한국 사회의 모순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사회 변혁을 이끄는 교수들도 있었고, 의견과 주장으로 시끌벅적했던 공론장도 형성되었다.

점차 시장이 국가와 사회 시스템을 장악하면서 보편 담론을 만들고 대중을 이끄는 대변자로서 지식인의 역할은 위축되었다. 되풀이되는 사업 평가와 연구 결과물 산출의 압박 속에서 더 열심히 생산성 지표를 충족하기 위해 안달을 부려야 하는 연구자에게 사회 현안에 관심을 둘 여유가 없다. 한 가깝게 긴 호흡의 인문학 저서를 집필하거나 고전을 번역하는 것은 사치처럼 느껴진다. 이처럼 우리들은 현실을 보는 눈 하나를 깊숙이 들어박아 놓고 다른 하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만을 보기 위해 위에 매달아 둔 라퓨타의 지식인이 되고 있다.

보편 담론은 격렬한 비판과 도전으로 그 권위와 정당성이 빠르게 축소되었고, 지식인은 특정 영역의 전문가로 분열되었으며 위대한 학자들은 무대 뒤로 사라졌다. 대중은 더 이상 지식 획득을 위해 지식인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권력체계의 대리인을 자처해 온 자칭 지식인들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식인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은 중요하다. 한국 사회는 불안과 공포에 길들여지고 있다. 진리가 의견으로 치부되고, 거짓이 참으로 뒤바뀌지는 권력의 폭력성을 무기력하게 목도하는 횡수가 더할수록 불안과 공포도 커져간다. 기억은 존재할 가치가 있는 것의 존재를 지속시키거나 연장하려는 의식적 노력으로,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기억은 작고 힘없는 자들의 도구인 반면, 망각은 크고 힘 있는 자들의 이익에 봉사한다. 지식인들은 하늘을 나는 섬에서 내려와 누가 일을 저지른 자이고 누가 피해자이며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를 기억하고 다른 이들과 대화해야 할 것이다. 사르트르가 말한 지식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근대적 약속은 적극적으로 기억하고 소통할 때 비로소 소환될 것이다.

특특 인터뷰

자랑스러운 원생들의 1문1답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이번 호에는 제66회 인하대학교 학위수여식에서 총장상을 수상한 최수안 박사의 인터뷰를 실습니다.

지금-여기의 다문화교육

최수안

(다문화교육학과, 2023년 8월 졸업)

Q: 인하대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A: 두 군데인데요. 정석학술도서관 3층 소셜서가 쪽이요. 학부 때 거기서 많이 공부했었고, 제가 좋아하는 책들이 3층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서호관 221호요. 3년 동안 집보다 더 오래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냥 좋아요.

Q: 지금까지의 연구 현장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A: 학위논문에도 쓰긴 했는데요. 예전에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로 있을 때, 제 수업을 들었던 분을 연구참여자로 정말 우연히 만났어요. 너무 신기하고 반가웠어요. 그분과 이야기하면서 결혼이주여성 자조모임 연구에 있어서 방향성을 많이 얻을 수 있었어요.

Q: 다문화교육이란 OO이다. 빈 칸을 채워주신다면?

다문화교육은 지금-여기이다. 이렇게 답변하고 싶어요. 다문화교육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 언어, 피부색만 가리키는 것은 너무 협소한 정의 같아요. 우리 모두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저는 다문화교육의 여정이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토대 속에서 다른 나라, 언어, 피부색이 다루어지면 지금이랑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Q: 들뢰즈가 살아 돌아와서 내 박사논문을 읽는다면?

A: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인데요. 생각만 해도 긴장이 되네요.... 그냥 재밌게 읽어 줬으면 좋겠어요. 아마 저의 들뢰즈 독해에 대해서 별다른 말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Q: 총장상 수상을 축하드려요. 기다리는 동안 들었던 생각은?

A: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질적 연구자답게 주변 사람들을 관찰했죠^^. 학위복 색을 보면 계열을 알 수 있는데 죄다 주황색(공대)이더라구요. 저만 하늘색이었어요. 그래서 인하대에 공대뿐만 아니라 다문화교육학과도 있다고 알려줄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총장상을 받은 것이 저 혼자만의 기쁨은 아니니까요. 우리 학과와 글로벌다문화교육연구단에 수상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Q: 앞으로 연구하고 싶은 주제/분야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여러 가지 관심이 가는 주제는 많지만, 일단은 이주여성들의 다양한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를 해보고 싶고요. 장기적으로는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Q: 마지막으로 박사가 된 나에게 한마디!

A: “공부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니? 학위취득은 끝이 아니라 연구자로서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 앞으로의 연구 여정을 기대할게!”



“토닥토닥”은 다문화교육
학과와 인문융합치료 전공
원생들과 박사들이 서로에게
지지와 격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전하는 공간입니다.

강변영
(인문융합치료 박사 7차)

마라톤 경주 출발을 위한 총소리가 크게 울려 퍼집니다. 그 즉시, 수많은 참가자가 앞을 향해 자신 있게 달려갑니다. 하지만 저는 출발 지점에서 발을 떼지 못하고 움썽달싹 못 하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출발 지점에서 멈추고 있는 저를 한심하게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려움에 차라리 포기 해야 할까 고민했지만, 다시 돌아갈 생각도 못 하고 있습니다. 마치 촛불이 일렁거리다가 힘없이 꺼지기 직전처럼 느껴집니다. 결국 포기선언을 하려는 순간 제 곁으로 여러 그림자가 다가옵니다. 다가오는 그들은 바로 ‘우리’ 들입니다. 혼자 서성거리고 있는 제 다리가 출발할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어느 타자도 강제가 아닌 스스로 선택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들은 어떤 차별과 편견 없이 제가 그 자리에서 발을 뗄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회자님도 제가 용기를 낼 수 있게 다시 ‘출발’ 을 외칩니다.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발걸음을 떼고 출발합니다. ‘우리’ 들은 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누가 먼저 앞으로 나서지 않고 동등한 걸음으로 함께 걸어갑니다. 뛰어가지 않고 천천히 걸어 가더라도 저에게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아낌없이 지지와 격려를 해주십니다. 꺼져가는 불씨도 활활 타오릅니다.

중간지점까지 걸어갔을 때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이곳저곳 부스러진 험난한 다리가 있습니다. 이 험난한 다리를 건너야만 저 너머에 있는 평평한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또다시 두려움과 걱정에 무너지려고 합니다. 마치 시들어 가고 있는 꽃처럼 말입니다. 건너가지 못하고 서성이고 있는 그때 건너편에서 저와 ‘우리’ 들을 응원해주는 가족, 지도교수님, 앞서 졸업한 멘토 교수님과 박사님께서 부스러진 다리 사이에 따뜻한 꽃길을 열어줍니다. 저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우리’ 가 안전하고 무사히 건너갈 수 있도록 말이죠. 또한 축 늘어져 있는 저와 ‘우리’ 들에게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신선한 물을 뿌려줍니다. 덕분에 따뜻하고 폭신한 꽃길을 타고 안전하게 다리를 건너갑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천천히 걸어갑니다. 어느새 저는 따뜻하고 폭신한 꽃길을 따라 도착지점까지 안전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만의 ‘공존’ 과 ‘이음’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연구를 준비하는 학문수련생으로서 많은 타자보다 부족한 ‘나’ 이기에, 전혀 앞으로 걸어갈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항상 따뜻한 꽃길을 열어주셔서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따뜻한 꽃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걸어주신 가족, 지도교수님, 멘토 교수님과 박사님, ‘우리’ 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따뜻한 이 길을 천천히 건다보면 어느새 웃는 모습으로 졸업하고 있는 저를 마주보길 기대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는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내일을 위해 또 그다음, 그리고 먼 훗날을 위해, 함께 행복 건강 웃음 가득한 오늘을 위해 숨을 활짝 열고 걸어가요.

성실하게 꽃을 피우듯

서현주

(다문화교육학과 박사 5차)

2021년 2학기, 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학과 박사과정에 전일제 연구생으로 입학하여 인천으로 이사 온 날, 친구로부터 ‘꽃기린’ 이라는 작고 조그마한 화분 하나를 선물 받았습니다.

저는 박사과정에 적응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며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처음에는 그저 초록 잎사귀만 몇 잎 있던 꽃기린 화분은 매일 모르는 사이에 조금 조금씩 자라고 있었나 봅니다. 어느 날 빨간 꽃잎을 피운 꽃기린은 그날 이후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꽃들을 피우고 있습니다. 꽃기린 화분은 ‘움직임은 보이지 않지만 멈추지 않는 해시계’ 처럼 자신의 성실한 삶을 충성되게 살아갔고 시들어 떨어진 꽃잎마저도 빨간 빛깔 그대로 아름다웠습니다. 꽃기린은 모든 순간 그 자체로 충분했습니다.

저의 박사과정을 기억하면 이 꽃기린 화분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입학 후 1학차 때 낯설고 어렵기만 했던 모든 시간들이 어느새 조금 조금씩 쌓이고 겹쳐 학위논문을 위한 예비발표의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야할 많은 길이 남아 있지만 꽃기린에게 비추었던 밝은 햇살과 시원한 바람, 흙이 마를까 때를 맞춰 부어주었던 물과 조금씩 자라는 꽃기린을 신기하게 바라보았던 따뜻한 시선처럼 박사과정 5학차 동안 지도해 주셨던 지도교수님, 멘토교수님, 선후배 동료연구자 선생님들과 동기생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사과정을
함께 시작한
꽃기린



10-12월 주요일정

영역	일시	내용	비고
학사일정	10.16-20	중간고사	
	12.4-8	기말고사	
국내 학술대회	11월 중	건국대 이주통합센터 공동학술대회	주제: 외국인과 문화유산
	11.3-4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장소: 연세대 발표자: 최현정, 장현정
	12월 중	한독교육학회 학술대회	
국제 학술대회	10.13-14	2023 아시아질적탐구학회 국제학술대회	장소: 순천대 & ZOOM 발표자: 남정연, 문희진, 서현주, 김혜미, 유희수, 함보연
	11.3	만주학회 공동 국제학술대회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BK 교육연구단 공동 주최
다문화인문학 시민강좌	10.30	12회 이성희 (총신대)	
국내 학자 초청 특강	10.5	101회 강영안	주제: 레비나스 철학
해외 학자 초청 특강	10.17	상호문화실천 공동워크숍	장소: 인하대 60주년 기념관 강사: 안연선, 김지혜 교수
석박사 졸업논문 예비 발표	11.13	다문화교육학과 인문융합치료 전공	시간: 19:00
경기 이름대학	12월 중	2학기 최종성과보고회	
다문화탈북 멘토링	10.28	멘토·멘티가 함께 뛰는 가을운동회	
지역사회 협력센터	10.14	계양구 가족센터 주관 온통 다문화축제	간담회 개최 예정
	10.30-11.1	인천시교육청 제2회 세계를 품은 인천교육 한마당	부스 참가
	11월 중	인천교육청 다문화교육지역사회협의회	
세미나 및 포럼	10.19	다문화융합연구소, 인천문화재단 공동 주관 문화교류 포럼	장소: 정석학술관 대회의실 주제: 인천의 문화다양성, 무엇이 과제인가?

2023-2학기
BK참여원생

지도교수	BK 참여원생
김영순	함보연 (박사 2차)
	곽민정 (석사 4차)
	황윤아 (석사 2차)
박수정	남정연 (박사 6차)
	서현주 (박사 5차)
박선미	유희수 (박사 4차)
신명선	김혜미 (박사 5차)
정상우	쑤첸 (박사 2차)
장성민	최현정 (박사 2차)
최현식	문희진 (박사 5차)
	이유진 (석사 2차)

BK21FOUR 소식지는 정기적으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소식지에 실을 내용이 있으시면 이메일 onyou21@gmail.com(김혜미)으로 보내주십시오.



인하대 BK글로벌다문화교육연구단

발행일: 2023년 9월 30일 (뉴스레터 2023년 9월호)

발행인: 김영순

편집인: 장현정, 김혜미

발행처: 인하대 BK21FOUR글로벌다문화교육연구단
222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인하대학교 5호관 남-171호
(전화) 032-860-8741
(이메일) onyou21@gmail.com
(홈페이지) <https://multicultural-inha.com>